

FAO 곡물시장뉴스



FAO 곡물시장뉴스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국제 시장의 가격 하락 압박으로 러시아산 밀 가격 하락

러시아산 밀 수출 가격이 지난주와 비교해 하락하였으며, 지역 무역상들은 주요 수출 경쟁국의 낮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밀 가격은 더 하락할 것으로 분석가들은 예측했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국내 수요 증가로 인해 최근 몇 주간 이들의 전통적인 수출 시장들에서 경쟁력이 감소하였다. 러시아산 밀 가격은 기록적인 수확량과 루블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게 유지되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농업 자문업체인 러시아의 SovEcon이 말했다. 지난주 파리 선물시장에서 거래된 11월 선물가격은 2010년 7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SovEcon은 심해항에서의 12.5% 단백질 함유 밀의 FOB(free-on-board) 가격은 전 주보다 8.5달러 하락한 237달러로 전망했다. 연해항에서의 밀 가격은 3.5달러 하락한 215달러로 예상했다.

러시아의 9월 밀 수출은 37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전 전망치인 420만톤보다 감소한 것이라고 농업 자문업체인 IKAR의 대표 Dmitry Rylko가 말했다. IKAR에 따르면 지난 주 말 러시아산 밀 가격은 일주일 전 톤당 240달러에서 236달러로 하락했다. 예상 가격은 지난주 말에 흑해에서 분선인도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부분적으로 흑해 폭풍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러시아산 밀 수요 하락 때문이다.”라고 Rylko는 말했다. 9월 한달 간 러시아는 약 300만 톤의 곡물을 선적했으며, 주요 수입국인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포함한다.

SovEcon은 8월 460만 톤의 기록적인 수출을 기록한 이후 9월 밀 수출은 최대

37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IKAR은 일주일 전에 이집트의 밀 수입 입찰에서 프랑스와 미국산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러시아산 본선인도 흑해 밀 가격은 톤당 230~231달러 선까지 하락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IKAR은 월요일에 러시아 밀 국내 가격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재고량 보충을 위해 구입할 정부 물량이 높은 국내 가격으로 인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정부의 곡물 시장 개입이 9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합병시킨 크림반도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법적 문제로 인해 밀 대부분을 수출 할 수 없게 된다.

■ 캐나다산 밀 품질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다

곡물 마케팅 회사인 CWB가 캐나다산 밀에 대해 “주요 관심사”라고 언급한 직후 유럽, 우크라이나 그리고 일부 미국산 밀 품질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CWB는 캐나다 밀 수확기간의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해 밀 알갱이들이 손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제분 사양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확기인 9월 동안 작물의 지나친 수분과 대 초월 전역의 때 이른 서리, 그리고 앨버타 주 일부에 내린 눈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밀 품질은 캐나다 밀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서부 지역의 주요 관심사이며, 이는 밀 업계 관계자들이 기상 여건 악화를 경고한 미국 북부보다 더 큰 걱정거리이다.

미국의 최대 봄밀 생산지역인 노스 다코타(North Dakota)주에서 비슷한 기후를 보였다고 CWB는 말했다. 그러나 노스 다코타주의 봄밀은 캐나다산 밀보다 약간 더 높은 등급이 매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이번 주 모니토바(Manitoba)의 농장 관계자들이 동부와 중부 지역에서의 “많은 작물들이 어렵거나 또는 축축한 수분 레벨 시기에 수확되는” 경우에 관한 우려 사항들에 주목하는 보고서와 일치한다.

최대 생산지역인 서스캐처원(Saskatchewan)주의 담당 공무원은 “수분 함량, 질병 그리고 서리가 작물에 피해를 입혀 많은 생산자들이 품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CWB는 특히 전체 수확량의 40%만이 수확된 듀럼밀에 대해 악천후가 끼치는 위협을 강조하며, 캐나다 서부 지역의 밀 품질은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다.

밀 선물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조합을 통해 판매되는 높은 등급의 듀럼밀의 농가 수익은 지난달에 비해 12 캐나다 달러 오른 395 캐나다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더 낮은 등급의 듀럼밀은 예상 가격이 11 캐나다 달러가 감소한 톤당 330 캐나다 달러로 예상했다.

가장 높은 등급의 일반 밀 예상 가격은 9캐나다 달러가 하락한 톤당 274캐나다 달러로 전망했으며, 낮은 등급은 톤당 14캐나다 달러가 하락한 219캐나다 달러로 예상했다.

“8월에 발간된 농가 수익 전망과 비교해 밀과 듀럼밀 등급 사이의 가격 차가 상당히 벌어졌다.”라고 CWB는 말했다.

■ 옥수수과 대두 위주의 식단이 토지 이용도를 대폭 낮춘다

이제까지 화석 연료와 비료로 인해 인구와 소비 성장세에 맞춰 식량 생산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사용에 대한 대가는 뒤따르는 법이다. 오늘날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은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며, 그동안 강 호수 그리고 해양지대의 대부분 지역이 농업 비료 유출 액체로 인해 산소를 빼앗긴 “죽음의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그동안 제시된 해결 방법 중 하나는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새로운 연구결과는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의 선택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밀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곡물이다. 만약 밀 빵이 아닌 옥수수 빵으로 바뀐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국제적 식량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작물 선택이 미치는 영향 정도를 연구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의 CONICET-Universidad Nacional de San Luis의 Esteban Jobb gy 교수와 에리조나 주립대의 Osvaldo Sala 교수는 여러 가지 다른 식단의 범위를 위한 영양소 철회와 비료 첨가를 모델화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옥수수는 재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작물들 중 하나로, 밀과 동일한 수확량 생산하기 위해 밀이 필요로 하는 2/3의 질소와 1/2의 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한편 대두는 가장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롤빵의 소고기 햄버거에서 옥수수 토르티아 안의 대두로 바꾸는 것이 꼭 성공의 길은 아니다.

만약 현재 밀에서 얻을 수 있는 칼로리를 옥수수와 대두의 식단으로 대체한다

면 이때 절약할 수 있는 양은 충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생산량이 두 배가 되어야 하며 대두 생산량은 1/4 증가해야 한다. Jobb gy와 Sala 교수는 현재 밀 재배역의 2/3만으로 세계가 필요한 모든 식량을 재배할 수 있다고 연구에서 밝혔다. 이에 더하여 밀이 없는 식단은 질소의 약 1/3을 절약할 수 있으며 현재 밀이 차지하는 인을 절약할 수 있다. 모순적으로 이러한 식단의 변화는 비료 이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현재 상태 하에 우리는 비싼 상품들에 과하게 비료를 투입하고 있어 만약 우리 식단의 큰 부분이 과일과 채소와 같은 비싼 상품들을 포함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하고 더욱 오염시킬 것”이라고 ERL(Enviromental Research Letter)에서 Jobb gy 교수가 설명했다.

국제적 분석들을 바탕으로 Jobb gy와 Sala 교수는 네 가지 식단 시나리오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이들 모두 현재의 필요 영양소들을 충족시킨다. 첫 두 식단들은 채식주의이고, 이 중 하나는 옥수수와 대두 바탕이며, 또 다른 하나는 밀과 쌀을 바탕으로 한다. 나머지 두 식단들은 대부분의 단백질을 구성되며, 이 중 하나는 옥수수, 대두 그리고 가금류에 중심을 맞추었고 또 다른 하나는 소고기, 돼지고기, 쌀 그리고 밀에 중심을 맞추었다.

옥수수와 대두 식단은 현재 식량 제도 보다 30%, 26% 그리고 36% 줄어든 토지, 토양 질소 그리고 토양 인을 이용한 결과를 보였다. 밀과 쌀 식단에서는 7%, 16% 그리고 21%로 줄어들었다. 가금류와 옥수수 식단은 육식 옵션을 지속하는 방향을 보이며 현재 시나리오 보다 비교적으로 추가적인 토지, 토양 영양소 또는 비료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정반대로 소고기와 쌀 대체 식단은 현재 식단보다 50% 이상의 토지와 토양 질소 그리고 두 배의 토양 인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변화들에 대한 반응으로 국제적 식량 생산 제도가 착수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궤도들을 보여주는 식이요법들의 ‘단점’들을 제공한다.”라고 Jobb gy는 말했다. “현재 국제적 식이요법은 가금류와 옥수수 시나리오를 향해 가고 있으나 옥수수와 대두 식단의 요소들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들을 균형 잡는 것이 전체적인 식량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농업 확장을 멈추고 지속 가능한 영양소 보급량을 보증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 브라질 이례적으로 옥수수 비축 계획을 밝히다

브라질 정부는 낮은 가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달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밀 구매 계획에 더하여 옥수수 비축 계획을 발표했다.

브라질 농무부 장관인 Neri Geller는 정부는 공공 비축을 목적으로 밀 40~60만 톤, 옥수수 100~150만 톤을 구매할 것이라고 이미 이전에 신호를 보냈었다고 말했다. 브라질 선거가 2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발표는 매우 이례적이며, 정부가 보장한 가격보다 떨어진 옥수수 생산농가에서 특히 환영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계획은 밀 구매 계획 발표 직후에 나온 것으로 “마치 정부가 밀 생산농가를 달랜 이후, 옥수수 생산농가를 달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영향력 있는 남미 농업 전문가인 Michael Cordonnier가 말했다.

일반적으로 브라질 정부는 최저 시장 가격을 보장하는 PEPRO(Premio Equalizador Pago ao Produtor) 프로그램을 통해 농부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소위 “경매들”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며, 농부들로 하여금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번 주 초에 정부가 옥수수를 위해 확보해 둔 예산의 상당 부분을 목화 지원을 위해 재할당한 이후, 정부가 PEPRO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커져갔다.

“브라질 정부는 오직 한 번의 경매를 충당할 수 있는 양의 돈만 남았다. 정부가 늘 발표한 것은 경매와 함께 다른 방법으로 가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인다.”라고 Cordonnier박사는 Agrimoney.com에게 말했다.

Geller씨는 또한 2014/15년 브라질 대두 생산량을 9,000~9,600만 톤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브라질의 2014/15년 대두 수출량은 4,800만 톤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미 농무부가 전망한 4,670만 톤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대두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부셴 당 7달러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스코틀랜드산 위스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리 재배면적 증가

스코틀랜드의 두 번째 수출 품목인 위스키의 전 세계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리 생산농가들은 재배면적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위스키는 보리를 주재료로 이용해 만든다.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산업은 연간 40억 유로 규모로 추정되며, 스코틀랜드 위스키 위원회에 따르면 1초당 약 40명의 위스키를 해외로 선적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위스키 수요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지난 몇 년간의 위스키 수요 증가로 인해 스코틀랜드의 목초지를 상당 부분을 보리를 재배하는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약 50만 ha의 곡물 작물들이 재배되며, 이 중의 약 50% 이상이 봄 보리를 재배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연간 약 170만 톤의 보리를 생산하며, 이는 호주의 연간 생산량인 약 700만 톤과 견줄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북동쪽 출신인 에버딘셔(Aberdeenshire)의 농부인 Richard Stephen씨는 보리 파종 후 기상 여건이 좋다면 보리 수확량을 헥타르 당 약 9톤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과 인도의 위스키 수요 증가로 인해 봄 보리 파종면적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Steven씨는 맥아 보리 가격의 변동성이 큰 편이나 계약을 통해 톤당 170유로에 팔린다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경작지를 최소로 갈아 경작하는 것이 표준관행이 되어 더 적은 수의 농부들이 작물 파종을 위해 방목지를 갈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곡물을 재배하는 경작지를 최소로 갈아 경작하는 것이 여전히 표준관행이다. 퍼스샤이어(Perth shire)의 농부인 Adrian Ivory씨는 최소로 갈아 경작하는 것은 아직 유행이 아니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 곡물을 재배하는데 가장 큰 제약요인은 습도와 추운 날씨이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따뜻한 날씨로 인해 Ivory씨의 농장에서는 산출량이 감소했다. “올해 7월은 매우 더웠고, 그로 인해 사실상 밀 산출량에 상당한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 밀 작물들은 매우 훌륭해 보였으나 그냥 죽어버렸다.”

Ivory씨는 일반적으로 영하 10도의 조건이 일주일은 겪는 일반적인 환경보다 겨울이 온화했다고 말한다.

“올해 우리는 서리를 한번 겪었다. 작물들은 서리나 눈이 질병들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질병들에 시달렸다. 우리가 위치한 이곳은 모스크바 보다 북쪽

이다. 여기는 정말 추워질 수 있다.”

호주와 달리 영국의 농부들은 농사를 짓는 토지와 그들이 재배하는 상품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보조금이 우리 소득의 약 15%를 차지한다. 우리는 이것이 없어지길 바라지만, 만약 우리에게서 없어지기 위해서는 유럽 전체적으로 없어져야 한다.”

■ 호주산 밀 수출 어려움에 직면하다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두려움이 흑해 지역과 이외의 유럽 국가들의 밀 생산량을 증가시키며, 호주의 주요 수출국인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밀 가격은 5월 이후로 31% 하락하며 4년 만에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이것은 지난 주 시장의 기대보다 낮은 미국의 밀 수출량이 발표된 후 약 4% 하락한 수치이다.

ANZ의 분석가인 Paul Deane씨는 미국의 지난 주 수출량은 31만 5,000톤이며, 이는 이전 주의 수출량의 절반 이하라고 말했다.

그는 연중부터 25% 하락한 설탕 가격은 밀 가격 하락을 반영하여 시장이 국제적 과잉 공급량에 지속적으로 민간하게 반응해 목요일에는 1.8% 하락했다.

로보뱅크(Robobank)의 곡물 분석가인 Graydon Chong씨는 호주산 밀 가격에 압력을 가했던 미국은 유럽과 흑해지역의 밀 생산량 증가로 인해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시장들로 들어가는 많은 공급량이 유럽에서 생산된다. 마지막 이집트 입찰은 프랑스산 밀이 낙찰되었으며 시장가격 보다 상당히 아래였다.”라고 Chong씨는 말했다.

“명백하게 흑해 시장들이 그 지역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들은 미국산이 아닌 거대한 공급량들을 들고 있고, 이에 대한 결과로 어느 정도의 마찰력 또는 일부 수요를 찾기 위해 미국 시장이 가격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미국과 이외의 북반구 지역에서의 기록적인 밀 수확량이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에는 미국의 약천후와 2월에 터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이 생산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했지만, 그러한 우려는 모두 사라져버렸다.

“우크라이나는 상품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것이 몇 가지를 약간

상승시키기는 했으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분쟁 기간 동안에도 낮은 추세를 지속하는 것을 봐왔다. 우리가 그 지역에서 겪었던 문제가 확실히 곡물의 흐름 세에 주요한 지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Chong씨는 말했다.

Chong씨는 미 농무부의 통계 자료를 언급하며 세계 곡물 생산량이 800만 톤 증가하였으며, 수요가 생산량만큼 증가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수요는 약 320만 톤 증가했으며, 이는 대부분 중국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내가 추측하기에는 밀에 대한 매우 약세 그림이 그려진다.”

그는 가격이 내년 초까지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때쯤에는 일부 수요들이 시장으로 돌아오고 내년 수확량은 올해 경험한 큰 수확량과 같이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닥을 친 것은 밀 뿐만이 아니다. 지난 6주간 옥수수 가격은 약 28% 하락했으며, 이 기간 동안 카놀라는 19.3% 하락했다. 또한 대두는 39% 급락했다.

Chong씨는 이러한 가격들의 하락을 과잉 공급량의 결과로 분석했다. “내 생각에는 이 곳 호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카놀라 생산량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내 가격들에 약간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많은 캐나다산과 유럽 산 작물 생산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주 산 가격에서 많은 가격 하락을 보았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것은 지방종자 복합체 이외에서 압력을 받고 있다. 대두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카놀라 가격들에 또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 아르헨티나 농부들이 옥수수를 심기 시작했다

로사리아 곡물 교환소에 따르면, 지난 몇 주간 아르헨티나 곡물 지역에 내린 강우로 산타페(Santa Fe)주의 중부와 남부에서의 옥수수 파종이 가능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를 초래했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이외 지역들과 산타페(Santa Fe)주에서는 옥수수 파종을 위한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파종 면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농부들이 점점 더 작물을 늦게 파종하며, 11월과 12월에 파종하는 경우에 1월의 가뭄이 닥치면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지난 주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곡물 거래소는 이번 시즌 옥수수 산

출량이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거래소는 보고서를 통해 낮은 가격들과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농부들이 곡물들을 방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인해 농부들은 경작지를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대두 재배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30%에 육박하는 국가 상황을 고려할 때 비용 최소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거래소는 옥수수 생산량은 이전 년도의 2,520만 톤에서 2,000만 톤으로 감소하며, 파종 면적도 880만 에이커에서 16% 감소한 740만 에이커로 전망했다. 옥수수는 대두보다 비용이 더 들고, 수출 제한의 대상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시즌에 얼마만큼의 옥수수를 수출을 위해 허락할 것인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수출 가능성에 대한 정확성 결핍이 농부들이 옥수수를 심지 않을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옥수수 수출국 이다.

■ 프랑스가 '싼값' 으로 이집트 밀 주문을 낙찰 받다

프랑스는 낮은 품질의 수확으로 인한 이집트 정부 조달의 압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쟁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의 가격 제안으로 GASC로부터 20개월 만에 가장 큰 밀 주문을 낙찰 받았다.

최고 밀 수입국인 이집트의 곡물 기관인 GASC는 입찰에서 18만 톤의 프랑스산 밀을 구매했으며, 이는 이들이 2013년 1월 유럽연합의 최고 곡물 생산국과 수출국에서 구매한 수량과 같다.

프랑스산 곡물은 선적비용을 포함해 톤당 평균 229달러로 구매되었으며, 이는 큰 수확으로 뒷받침되어 2014/15년 수출에 가속도를 높이기 시작한 러시아를 포함한 경쟁국의 제안보다 매우 낮은 가격이다.

러시아 밀 수확량 전망을 200만 톤 증가시켜 6,000만 톤으로 정정한 분석 기관인 SovEcon는 화요일에 2014/15년 수출량을 50만 톤 증가시킨 2,250만 톤으로 조정했으며, 이는 지난 시즌보다 1,830만톤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제안 가격은 톤 당 9달러 또는 이상으로, 흑해에서 이집트로 선적하는 것보다 프랑스에서 이집트로 선적하는데 필요한 톤당 6~7달러 의 여분의 가격을 포함해도 프랑스의 제안 가격보다 높았다.

낙찰된 프랑스 입찰 가격은 GASC가 이 국가에서 2주전 구매한 화물보다도 톤당 10달러 싼 가격이었다.

“프랑스가 더 많은 바닥 흥정 가격들을 갖고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유럽 거래가가 말하며, 이러한 가격을 강우가 타격한 수확으로 인해 위협을 받은 낮은 품질 종류를 상대하는데 이용되지 않았던 이 국가의 유통 네트워크를 정리하기 위해 “필사적임”에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유럽 상품 거래소들의 거래가들은 “프랑스산 밀의 가변적인 품질이 수출용 제분, 국내용 제분 그리고 사료 등급을 분리하기 위해 공간을 찾는데 여러 가지 저장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알맹이 맵아를 복돋는데 있어서 늦은 비는 작물의 제분 품질을 감소시키지만, 프랑스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프랑스 저장고 문제는 지난주 Matif 선물 거래소로 밀을 운송하고자 소망하는 생산자들의 두 곳의 목적지 중 하나인 Seanlia가 이들이 새로운 수납물들을 마감한다고 밝혔을 때 터졌다.

Rouen 항구에 위치하고 25만 톤의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이 단체는 이러한 결정을 어긋난 수출에 대한 전망과 이미 이들이 보관하는 곡물들의 규모에 맞을 돌렸다. “이 같은 기업이 가장 바쁜 시점에 운송물들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유럽 상품 거래소가 말했다.

유럽연합 외부로의 프랑스산 밀의 수입은 7년 만에 최저로 하락할 것이라고 지난 주 FranceAgriMer는 말했으며, 연합 내의 선적량은 증가하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주요 북 아프리카 수입가들에 의해 수요 되는 높은 사양을 만족 시킬 수량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GASC에게 제공된 프랑스산 밀은 미국산 적색 연질 겨울 밀의 화물들 보다 저가로 판매되었으며, 선적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톤당 231.40달러로 가장 낮게 가격이 매겨졌었다.

더욱 높은 유로 가치는 이외의 통화를 이용하는 바이어들에게 구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유로가 지배하는 자산들의 가격을 약화시킨다. 월요일에 SovEcon은 12.5%의 단백질 함유하는 러시아 산 밀의 가격들은 지난주 톤당 248달러로 안정적이었다고 말했다.